

광주·전남 새해 달라지는 것들

# 전 지역 자동차 공회전 제한

## 광주

내년부터 광주 모든 지역에서 자동차 공회전이 제한된다. 또, 광주에 거주하는 모든 출산 가정에는 출산용품(‘마더 박스’)을 지원한다.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보육료도 광주 시가 지급한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확대 = 자동차 공회전 제한을 현재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 118곳에서 광주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특히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등 특별히 공회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중점 제한 장소로 지정·관리한다. 현재 공회전 제한 시간은 5분 이상이지만, 내년부터 2분 이내로 줄인다.

▲비상저감조치 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미세먼지 주 배출원인 5등급 차량의 운행에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출산용품 마더 박스 지원 = 광주에 거

출산가정에 ‘마더 박스’ 지급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확대  
소방시설 종합 점검 대상 확대

주하는 모든 출산 가정에 출산축하금과 별개로 출산용품인 ‘마더 박스’를 10만원 상당의 광주 상생 카드로 지원한다.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러 부모가 부담해야 할 보육료를 지원한다. 차액 보육료는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의 만 3~5세 아동의 부모가 정부 지원 보육료 이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이다.

▲아동 급식 지원 확대 = 형편상 가정에서 음식 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취약·미취학 아동,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에게 5천원의 식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중

위소득 52% 이하·차상위 계층·한부모·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다.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 영유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러 1인당 1일 2천260원의 어린이집 급식비를 일부 지원한다.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 기사 인건비 지원 = 장애아 통학 차량을 운행하는 어린이집의 인건비와 주유비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운전기사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소방시설 종합 정밀점검 대상 확대 = 연면적 5천㎡ 미만 건축물도 전문 점검업자가 점검해 ‘셀프 점검’의 부작용을 해소한다. 관계인이 자체 점검을 한 경우에는 점검을 마치고 7일 이내에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누리과정 개편 =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에게 놀이를 통한 재미와 행복, 자신감, 문제해결 능력, 자율성, 창의성 등을 기를 기회를 제공하도록 교육 과정을 개편한다.

/김현호 기자 khh@kwangju.co.kr

# 농어민에 공익수당 지급

## 전남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전남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임산부에게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며, 시·군별로 제각각으로 운영되던 장애인 콜택시 요금도 단일화한다.

▲농어민 수당 지급 = 농어민 공익수당 제도는 전남도와 시·군이 농어업과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다.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전남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경영체 등록 농어민에게 지급한다. 상반기는 5월, 하반기는 10월에 30만원씩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

▲생활임금액 지급 1만380원 = 내년 1월 1일부터 전남에 적용되는 생활임금액은 시급 1만380원이다. 생활임금제는 전남도 소속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정한 최저 임금보다 높게 지급한다. 올해 생활임금(1만원)보

장애인 콜택시 요금 단일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농발 주변 불 피울 땀 사전 신고

다 3.8% 올랐고 정부 발표 내년 최저임금(8590원)보다 20.8% 많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도내 거주 임산부에게 1년간 공급한다. 순천·나주시, 해남·장성·신안군 등 5개 시군 시범지역 임산부는 총 지원금의 20%인 9만 6천원을 부담하면, 임신부터 출산 후 1년까지 최대 12개월간 48만원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구매 비용을 지원받는다.

▲장애인 콜택시 요금 단일화 = 도내 22개 시·군에서 요금을 제각각으로 운영되던 것을 기본요금 2km당 500원, 추가요금 1km당 100원으로 하고, 관내는 시내버스·근대버스 요금으로, 관외는 시외버스 요금으로 통일한다. 자정부터 오전 4시

까지 심야에는주간요금의 2배로 한다. 시·군마다 다르게 운영되던 운영 시간도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으로 바꾼다.

▲재난·생활 정보 모바일 앱 알림 = 도민에게 재난·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내용이나 주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음성으로 알리는 모바일 앱 서비스를 시행한다. 그동안 지진·해일·태풍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자동 문자전송시스템을 통해 긴급재난 문자를 전송했으나 장애인과 노약자는 신체 특성상 즉시 확인이 곤란해 위험에 노출됐다는 지적에 이를 보완했다.

▲농발 주변 불 피울 땀 사전 신고 = 농과 발 주변에서 불을 피울 시 119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아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화재로 의심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거나 전 일사·정소·사유 등을 관할 소방서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전남 지역암센터가 26일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헌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 광주·전남 암센터 내년부터 본격 운영

### 효율적 암 관리 대응체계 구축

광주·전남 지역민의 암질환 연구와 진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광주·전남지역 암센터가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광주시는 기존 전남지역 암센터가 광주와 협업체계를 갖춰 광주·전남지역 암센터로 전환해 내년부터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광주·전남 지역 암센터는 이날 헌판식을 열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을 알렸다.

화순 전남대학교병원에 있는 광주·전남 지역 암센터는 암 조기 발견, 전이·약성 여

부 판별에 필수 장비인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기기를 갖췄다. 또한, 치료 후유증과 장애를 최소화하는 방사선 치료기 모데라피, 절개 없이 병변 부위만 방사선 수술을 시행하는 무혈 수술기(Gamma Knife) 등 첨단 장비도 보유했다.

암센터는 연간 1만6000여명에 달하는 광주·전남 암 환자 진료는 물론 ▲지역민의 암 질환 역학적 특성 파악을 위한 조사연구 ▲암 조기 발견 사업 ▲암 예방과 홍보 및 교육 훈련 ▲호스피스 완화 의료와 재가 암 환자 관리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광주·전남지역 암센터가 운영에 따라 그

동안 치료를 받기 위해 수도권을 오가면서 불편을 겪은 지역 암 환자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비 부담도 덜어주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남 지역 암센터는 2004년 9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가암 관리 사업을 수행할 거점센터로 지정받아 전체 면적 1만 200여㎡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2007년 개소했다. 광주에 지역 암센터가 없는 현실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전남도, 화순 전남대학교병원과 합의해 광주·전남 지역 암센터로 간판을 바꿔 달게 됐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어등산사업 서진건설 고발되나

광주도시공사,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 고발 검토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그 지위를 박탈당한(주)서진건설의 대표이사도 형사고발 당할 처지에 놓였다.

사업 이행 담보금 성격의 48억원짜리 당좌수표를 광주도시공사에 제출하고선 협상 결렬로 전액 몰수당할 처지에 놓이자 ‘사고수표’라고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신청(광주일보 2019년 12월 25일자 5면)을 했는데, 시행자인 광주도시공사 법률 검토 결과 대표이사 고발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26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어등산 사업’ 이행 담보금 관련, 변호사 자문에서 서진건설 대표이사를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부정수표 단속법은 제4조(거짓 신고자의 형사책임)에서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행 담보금은 지난 7월 어등산 사업 우선협상자로 서진건설이 선정, 발표되기 전 광주시가 자본 조달 능력 등 사업 수행 능력에의구심을 갖자 서진건설이 제출한 48억원짜리 당좌수표다. 서진건설은 자본 조달 능력 등 사업 추진 능력에 문제가 없고

사업협약(본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성실히 응했으며, 사업 추진도 원활히 하겠다는 취지로 수표를 발행했다.

그런데 협상 시한인 지난 20일 협상장에는 나타나지 않고 광주은행을 찾아 해당 수표는 사고수표로, 광주도시공사(현금) 지급을 요청해도 주서는 안 된다며 지급정지 신청을 했다. 서진건설 측은 은행 측에 지급 정지 사유로는 ‘계약 불이행’을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공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담보 보증금을 지불할 수 없다는 적법하장식 주장을 편 것이다. 다만 서진건설 측은 발행 당좌수표 지급 불능에 따른 제재(부도 처리)를 피하려고 액면가액에 해당하는 48억원을 은행 측에 예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광주도시공사는 전했다.

도시공사는 대표이사 형사고발과 함께 법원에 수표금 지급신청 소송 제기도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광주시와 조율 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서진건설 때문에 5개월 이상 시간과 행정력을 낭비하게 됐다. 협상 결렬도 서진건설 측이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며 “대표이사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는 시민 눈높이에 맞게 금명간 취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h@kwangju.co.kr

## 광주시 140명 승진 인사

오영결·이평형 부이사관 승진  
‘일과 성과’ 중심 원칙 방침

광주시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명예 퇴직, 공로연수, 조직개편 등 결원 직위에 따라 총 140명의 승진자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진 인사에서는 오영결 정책기획관과 이평형 문화도시정책관이 3급 지방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이승진자는 4급 13명, 5급 28명, 6급 49명, 7급 40명, 8급 8명 등이다. 광주시는 이번 승진인사는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의 기본원칙에 방침을 뒀다고 밝혔다.

4급 이상은 관리자로서 능력과 리더십, 업무성과, 대내·외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5급 이하의 객관적 평가기준인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를 존중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업무 성과 우수자인 ‘이달의 공무원’ 등 현안사업 성과 창출자와 광주시 최초 여성 토목 사무관 등을 발탁했다.

광주시는 오는 1월 1일자 4급 이상 국·과장급 전보인사를 시작으로 1월 13일까지 전보인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ESS시공전문기업

#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하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